

2024. 2. 2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2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업기술센터

| | | |
|----------------|---------------------------------------------------------------|--------------|
| 소장 | 조상태 | 02-459-8005 |
| 농업교육과장 | 이연미 | 02-6959-9340 |
| 치유농업팀장 | 조은희 | 02-459-8993 |
| 관련 누리집 (메뉴) | http://agro.seoul.go.kr | |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 5쪽

서울시, 식집사를 위한 '2024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4~6월 운영·참여단지 12곳 모집

(식물+집사 합성어)

- 반려식물전문가가 공동주택단지 직접 방문해 반려식물 병해충 진단·상담, 관리법 등 교육
- 23일(금)부터 참여단지 12곳 모집...20명 이상·주차장 3면 이상 장소 있으면 가능
- 시민 방문 가능한 광역반려식물병원(농업기술센터 내)도 운영...반려식물 진단·처방·치료
- 시, “시민들과 반려식물의 건강한 동행을 위해 반려식물병원 지속 운영해나갈 것”

서울시가 가정에서 식물을 가꾸는 일명 ‘식집사(식물+집사·반려식물에 애정을 쏟는 사람)’들의 아프고 상한 반려식물을 직접 찾아가 치료하고 관리방법 까지 알려주는 반려식물병원을 운영한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공동주택 12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반려식물 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은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12곳의 공동주택단지가 참여 가능하며 1곳당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신청 시 최소 참여

인원이 20명이 넘고 단지 내 반려식물병원을 운영할 장소(주차장 3면 이상 면적)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 생활권 반려식물클리닉 운영 자치구는 신청 제외(4곳) : 종로, 동대문, 은평, 양천

□ 교육은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에 반려식물 전문가가 방문하여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반려식물을 가꾸면서 식물이 시들거나 병해충이 생겨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병해충 진단 영상 장비 등을 활용해 병해충 진단해주고 식물 재배관리 방법 등을 알려준다.

□ 참여한 시민에게는 교육과 상담 외에도 반려식물 가꾸기에 필요한 식물, 분갈이용 상토, 식물 영양제를 지원한다.

□ 한편, 서울시는 최근 정서적 안정과 실내 공기정화 등의 이유로 반려식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여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식물병원과 함께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광역반려식물병원’도 운영하고 있다.

○ 반려식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2022년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반려식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은 87.9%로 높으며, 반려식물을 가꾸는 목적은 ▲정서적 교감 및 안정 55%, ▲공기정화 27%, ▲실내장식 14%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식물인 분화류의 판매량(2022년 농림축산식품부)도 2020년 대비 7.0%, 2021년 대비 3.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광역반려식물병원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반려식물에 대한 진단·처방·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당일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입원도 가능하다. 이용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에서 사전 접수하면 된다.

- 반려식물병원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http://agro.seoul.go.kr>)을 이용하거나, 전화 02-6956-8240 (광역반려식물병원), 02-6959-9371(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로 문의하면 된다.
-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감염병 대유행 이후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서울시민들이 반려식물을 가꾸면서 병해충 발생이나 시들음 증상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과 「광역반려식물병원」 을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민들이 반려식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내 「광역반려식물병원」

붙임 1. 반려식물병원 운영개요

2. 반려식물 소비자 인식 및 소비량 관련 자료

반려식물 병원 운영 개요

□ 찾아가는 반려식물 병원

- 모집기간 : 2024. 2. 23.(금) ~ 3. 8.(금)
- 모집대상 :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미운영 자치구 관내 공동주택단지
 - ※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자치구 : 종로구, 동대문구, 은평구, 양천구
- 모집인원 : 12회 360명(상반기, 1곳 30명)
- 신청방법 : 자치구에서 희망공동주택단지 추천 공문 신청
 - '23년 찾아가는 반려식물 병원 미참여 자치구 및 '24년 신규 신청단체 우선 선정
- 주요내용

| | |
|------|-----------------------------------|
| 운영기간 | 2024. 4 ~ 6월 |
| 운영시간 | 1회 2시간(신청가능 시간대 : 10~12시, 14~16시) |
| 운영장소 | 공동주택단지 내(필요면적 : 주차장 3면 이상) |
| 참여인원 | 20 ~ 40명 (최소신청인원 20명 이상) |
| 교육내용 | 재배관리 교육, 분갈이 실습, 병해충 진단 및 상담 |
| 신청문의 | 02-6959-9371 |

□ 광역반려식물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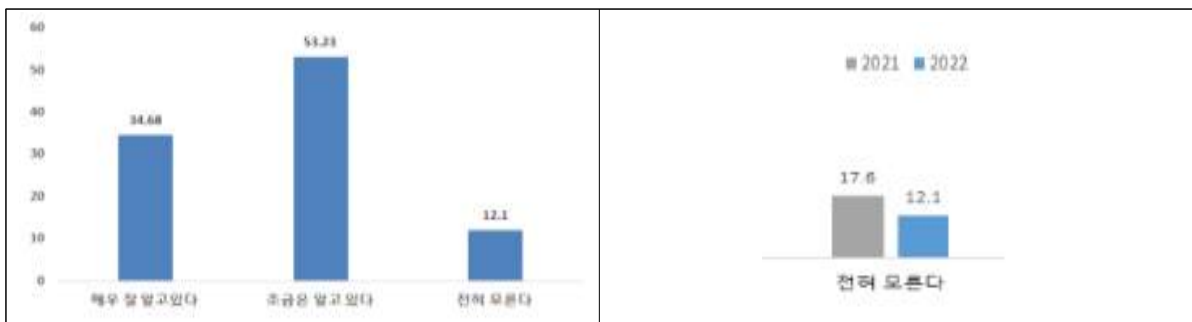
- 이용시간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이용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1인 당 화분 3개 이하)
- 이용방법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s://yeyak.seoul.go.kr/>)에서 신청·진단의뢰서 작성 후 예약시간 방문
- 운영장소 : 서울시농업기술센터 1층(서초구 현인릉1길 83-9)
- 운영내용 : 반려식물 진단, 처방, 입원, 상담, 교육 등
- 기타사항 :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화상담(02-6956-8240~1)
 - ※ 전화로 해결이 어려울시 화상진료로 전환하여 진행

반려식물 관련 소비자 인식수준 및 소비량 관련 자료

□ 반려식물 소비자 인식조사 : 농촌진흥청 조사자료(2022년)

○ 반려식물 인지도

-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조금은 알고 있다) 비율이 약 87.9%로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보다 2022년 조사에서는 반려식물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줄어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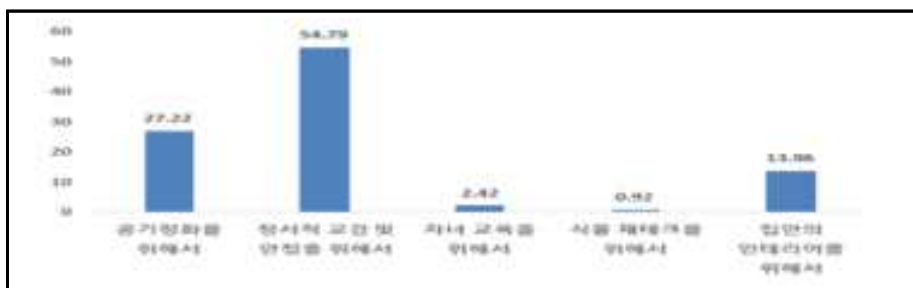


〈반려식물 인식 수준(%)〉

〈반려식물 인식 수준 비교〉

○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

-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으로 ▲정서적 교감 및 안정을 위해서(54.8%), ▲공기정화를 위해서(27.2%), ▲집안의 인테리어를 위해서(1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

□ 식물 분화류 판매량 및 판매액 :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자료(2022년)

- 반려식물, 실내인테리어 소품 등의 소비 확대로 분화류의 꾸준한 판매량 증가 : 2021년 대비 3.3%↑, 2020년 대비 7.0%↑